

큰 빛은 혜교회

가정예배지

2025. 3. 5.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주 품에”

다 같 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절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2절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후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를 보리라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 도 자

성경 봉독

창세기 14장 11~16

다 같 이

11.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12.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13.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14.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16.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성경 본문의 당시 세상은 정복과 약탈이 성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열방의 많은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있었던 시대입니다. 고대의 용사들과 신비로운 주술이 난무하던 그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가정과 개인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세상을 대적하는 사람

당시 세상은 온통 정복과 약탈로 어지러운 세상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 모습과 모양이 다를 뿐 이와 비슷한 세상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는 러시아, 대만을 집어삼키려는 중국, 핵무장으로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려는 미국 등 양상은 다르지만 당시와 비슷한 세상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세상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방의 왕들의 무서운 세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대적하여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열방의 패권과 왕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여 승리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이 커 보이고,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평상시 준비된 사람

아브라함은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도 당황하거나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사랑하는 조카를 구출하려 나섰던 것입니다. 당시의 왕들은 동맹하여 그 힘이 막강했고, 게다가 나그네로서의 아브라함은 큰소리 칠 수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 있게 구출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용기는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는 다름 아닌 평소의 준비에서 온 것입니다.

본문 14절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란 구절이 그의 평상시의 철저한 준비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준비되어진 삶을 살 때 비로소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로, 가정 예배로, 홈리스 사역으로,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 준 책들을 통해서 믿음을 준비하는 개인과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침착하고 치밀한 사람

본문에 보면 무모한 용기와 혈기로 아브라함이 조카 룻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용기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거나 어떠한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아무런 결실이 없는 만용일 뿐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평소에 갈고 닦은 준비성과 더불어 잘 계획된 행동력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무턱대고 급하게 구출하러 간 것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을 펼쳐냅니다. 본문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여기에 보면 가신들을 나누어서 공격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밤에 어둠을 통해서 기습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침착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가정과 개인이 침착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눔

다 같 이

1. 우리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실수했던 경험이 있는지 나눠주세요.
2. 평상시에 신앙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3. 이번 한 주 동안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철저한 준비, 침착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각자 무엇을 노력해볼 수 있을까요?

중 보 기 도

큰빛은혜교회를 위해

다 같 이

1.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2.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 세워주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3. 교회의 모든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되고 실행되도록
4. 교회 건축을 위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5. 영적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마무리 기도

다 같 이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고, 담대히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살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 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